

본문 : 시편 113:1-3 / 삼상 30:17-25

제목 : 한 식구(食口) "one family"

1.

좋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는데 추석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미국에 온지 3년 정도 밖에 안 돼서 그런지 추석이 되면 고향집도 생각나고, 송편도 먹고 싶고 가족들이 많이 보고싶더라구요. 같이 한 밥상에 둘러 먹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었던 식구들이 추석같은 명절이 되면 더 보고싶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역만리 타향살이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를 사교단체라 하지 않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합니다. 여러 모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를 닮았기 때문이죠.

시편 133 편은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 형제가 하나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133 편의 타이틀인 "다윗의 시"라는 대목이 있는 것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133 편은 다윗의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삶의 스토리와 경험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라고 고백했을까요? 사무엘상 30 장의 스토리를 통해 시편 133 편을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2.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언약 공동체로 세우셨죠. 언약 공동체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복을 받는 대신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흘러 보내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백성으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델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부르심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으로 들에 있을 때부터 그를 주목했고 왕으로 미리 기름부으셨습니다. 그는 사울을 대신해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지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과 소망과 정 반대로 사울에 의해 광야로 내 몰려 쫓겨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때 부터 오히려 하나님은 도망자 다윗에게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끌어 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광야들을 떠돌아다니며 공동체를 이끌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실험합니다. 사무엘상 22 장을 보면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든 장면이 나옵니다.

“1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2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사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사무엘상 22:1-2)

자기 자신도 쫓겨 다니는 도망자인데 사백여 명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다윗의 부담감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빛 때문에 파산을 당한 사람들,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아 왕따가 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죠. 여러분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남을 자꾸 찌릅니다. 이런 거친 사람들을 이끌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400 명의 식솔들의 배를 채우는 일도 만만찮았겠죠. 몇 년이 지난 이야기인 사무엘상 30 장에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병사들만 600 명이 나오는 것 보니 그 사이에 다윗의 공동체는 몇 배로 사람이 늘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공동체가 매력적이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데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예 성읍을 하나 잡아서 정착을하기로 마음 먹죠.

5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6 그러자 아기스는 그 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 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사무엘상 27 장 5-6 절)

다윗은 블레셋 땅인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성읍을 하나 달라고 부탁을 하죠.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다윗에 의해 죽은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찾아 들어간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수백명의 식솔들을 받아 줍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다윗 공동체는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서 다윗의 입장이 난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블레셋을 도와 동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것이지 블레셋의 장군들은 다윗이 원수인데 그를 데리고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아기스 왕을 압박합니다. 결국 다윗의 군대는 뒷자를 맞고 시글락성으로 사흘길을 달려 돌아왔습니다.

3.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윗과 600 명의 군인들이 시글락 성에 돌아온 후부터입니다. 블레셋과 다른 민족인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약탈하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군인들이 북쪽에 참전해 있는 틈을 타서 시글락성을 공격합니다. 성을 침입하여 불을 지르고 여자와 아이, 그리고 노인까지 모두 포로로 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불타 없어진 시글락 성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목놓아 함께 울었는데 더 이상 울 힘이 없이 지칠 때까지 울었다고 말해 줍니다. 삼상 30 장 6 절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6 절-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솔직히 다윗이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속죄양(scapegoat)을 찾아 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곤경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하나님은 아말렉군대를 쫓아가라고 하십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철저히 그의 공동체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틀 동안 아말렉 군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가족들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시글락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뒤쫓기 위해 600 명의 군인들이 함께 갔었는데 그들은 이미 먼 길을 이동해 온 상태였고 또 이동하여 싸우려니 낙오자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200 명의 군인들이 낙오해 버립니다. 도저히 못 가겠으니 당신들이 가서 우리 대신 싸우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의 군대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죽더라도 함께 죽자라는 기세로 달려들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힘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200 명은 브솔 시냇가에서 나머지 400 명의 군인들이 싸움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나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물리치고 가족들을 구하여 돌아오는 것을 브솔시내의 낙오자들은 볼 수 있었죠.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다윗과 동료 군인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싸우고 돌아온 400 명들의 눈에 200 명의 낙오자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밍상이죠. 자기네들은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틀 동안 싸우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데 웃으면서 달려오는 그들이 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과 달리 지도자 다윗은 낙오자들에게 따뜻하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전리품까지 그들과 동등하게 나누자고 합니다.

출전했던 400 명의 군인들 중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 몇이 다윗을 따로 부릅니다. “대장님 저 사람들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설마 저 인간들에게 전리품들을 나눠줄 생각이십니까?”, “설마 그럴 생각은 아니신 거죠? 그냥 아내와 자식들만 데려가게 하고 저희들이 싸워서 얻어온 전리품은 저런 인간들에게 주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어요?”라고 했겠죠. 이것보다 더 우락부락 달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의 나라에서 세워질 놀라운 원칙을 세웁니다. 그것은 모두가 함께 나누며 누리자는 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전리품도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선물로 준 것을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 되겠나? 전쟁에 나간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한다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는 거야.”**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은 중요한 법률 규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윗 왕국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통치 아래 평등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꿈이었습니다.

4.

다윗은 그가 다스릴 나라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길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들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나눔과 받아들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보여준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말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은 뜬구름 잡는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받아들임과 나눔을 통해 언약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사회의 구석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였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용납과 나눔은 하나되는 방법이자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건만 보더라도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은 전쟁의 승리도 전리품도 모두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거저 받았기에 거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받아들임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과 나눔을 통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체험했고 즐거워했습니다.

받아들임을 생각할 때 숙명여대 국문학과 교수이신 김응교 시인께서 ‘깍두기’에 대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옛날 동네에서 편을 갈라 놀이를 하면 자기와 실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합니다. 아이들이 홀수 숫자일 때 편을 가르고 나면 꼭 한 명이 남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아이는 그 중에 가장 실력이 떨어진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도 매번 깍두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깍두기”라고 해서 더 못하는 팀에서 데려갑니다. 김응교 시인께서 하시는 말이 이 깍두기는 승리의 기쁨은 함께 나누지만 패배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깍두기, 니가 못해서 우리가 졌다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깍두기를 “왕따”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릅니다. 세상에서 왕따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에서라도 깍두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호의(favor)가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본적인 공기는 받아들임과 나눔이어야 합니다.

5.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를 '식구'로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족은 씨족사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말입니다. 같은 성씨를 갖고 한 피 받아 살아가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식구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식구를 한자로 쓰면 밥식(食)에 입구(口)자를 씁니다. 함께 밥상을 나누는 사이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말의 Community와 성찬 떡과 포도 뜻하는 Communion은 거의 비슷한 단어이죠. 성찬을 함께 떼는 사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눠 먹는 사이를 우리는 Community라 부릅니다. 한 밥상 아래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사이이기 때문에 한 형제이자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드립니다. 주기도의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래 자녀된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가 같으니 자연스레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어릴 적 등근 밥상에 둘러 앉아 밥을 먹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희 가족은 12 식구가 상 두개에 나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다보면 꼭 동네 어떤 어르신이 놀러 오십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식사하셨어요?", "얼른 오셔서 밥 한 술 뜨세요"라고 말하며 어떤 이든 밥상으로 초대하곤 하셨습니다. 그를 손님이 아니라 식구로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등그런 밥상에 앉아 있노라면 어떤 이도 식구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차려 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을 나누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여기 오는 누구든 환영 받아야 합니다. 여기 오는 누구든 우리의 형제요 자매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지 한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모두가 한 식구이긴 매 한가지입니다. 다하나 교회에 새로 온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형제인가요? 이 교회에 나온지 한 두 달 또는 1년이 채 안된 새 가족들은 여러분의 형제이자 자매인가요?

다윗의 광야 공동체처럼 우리 모두는 광야같은 세상 속 한 가운데서 공동체로 모입니다. 광야란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독한 곳을 말합니다. 광야란 끈 떨어진 연처럼 외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광야 같은 세상 한 가운데서 한 식구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의 공동체를 광야에서부터 실험하고 실천하였듯이 우리도 먼 미래에 이뤄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 위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나눔과 받아들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6.

여러분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한 피 받아 한 몸이룬 형제이고 성찬을 함께 나누는 한 식구인가? 그가 만약 나에게 형제와 자매이자 한 식구라면 그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닌가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약해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뀐 후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나요? 혹시 나에게 은혜가 부족해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저의 큰 아들은 기도하라고 하면 꼭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오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너무 웃기잖습니까? 이녀석 6 살에 아빠가 암수술을 받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아이에게 생명이란 매우 실존적인 문제가 되어버린겁니다. 그에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은 이 살아 있음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것인지 알겁니다.

우리가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옆에 있는 형제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란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가 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가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있음으로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이곳에 모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리더지를 반복할 겁니다. 매주 만남을 통해 한 식구가 되도록 시도해 보는 겁니다. 목장 모임도 그런 의미에서 반복적인 리더지가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목장 모임은 우리에게 한 식구로 형성되어 가도록 돕는 리더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우리로 살아가는 리더지 속으로 우리를 집어 넣는 거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임과 용납 그리고 나눔의 실천은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나눔과 용납이 교회의 공기가 되어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오면 숨통이 트이고 살아갈 맛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하나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